# 60여 년 천착해 온 '가족'의 의미를 사유하다

## '황영성 초대전:우주 가족 이야기'

### 내년 2월 18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
### 회화등 110여점 전시…21일 개막식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황영성 화백. 〈도립미술관 제공〉

가족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주제다. 저마다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 정서가 다르다. 물론 오늘의 관점에서 가족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외형적인 구성에서부터 기능적인 면, 심리적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족의 정의와 범위가 달라져도 가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근원적인 것은 힘이 있기 마련이다.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환기하는 것은 친밀감, 따뜻함, 그리움, 안락함이다.

60여년 화업을 이어온 황영성 화백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주제는 '가족'이다. 어쩌면 그에게 가족은 수구초심(首丘初心)과 같은 의미와 정서를 떠올리게 할지 모른다. '머리를 구릉을 향해 두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그의 작품 세계와 결부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그의 그림에 곧잘 등장하는 소는 더러 고향으로 치환되거나 가족으로 확대된다. 순박하고 우직한 소의 이미지에는 지난한 세월을 감당해야 했던 운명 같은 게 드리워져 있다.

원로작가 황영성 화백의 60년 작가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전남도립미술관이 내년 2월 18일까지 개최하는 '황영성 초대전: 우주 가족 이야기'가 그것. 소박한 시골집 가족부터 대자연의 뭇 생명, 그리고 우주 가족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천착해왔던 '다양한 층위의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다. 회화와 설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자료 등 모두 110여 점이 출품됐다.

1941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황 화백은 6·25 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와 광주에 정착한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후 국전 입선과 6차례 특선,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1973년)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는다. 1990년대 이후로는 국내를 넘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는 가족에 대한, 망향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을 모티브로 세상과 화폭을 잇는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전쟁 통에 떠나온 고향이 어떻게 창작의 열정으로 추동됐는지, 그리고 화폭에 투영됐는지, 그 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황 화백은 전화통화에서 "이번 전시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총 망라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도립미술관에서 기획부터 작품 선정 등 모든 작업을 도맡아 진행했는데, 60여 년의 화업을 반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나로서는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6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1부 '자연주의 구상회화'는 화단 등단 초기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대 교수였던 양수아, 임직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후의 남도 자연과 감흥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 구상회화를 만난다.

2부 '회색빛 향토서정'은 작가가 말하는 '회색의 시대'와 맞물려 있다. 가족과 마을의 개념을 회색조 회화로 변용한 1970년대 연작들이 주인공이다. 마치 정겨운 흑백 TV를 보는 듯한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생명의 기운을 목가적인 전원 풍경으로 초점화한 작품들도 있다. 3부 '녹색 들녘과 가족'은 1980년대 마을과 산야를 넓게 내려다보는 부감 시점을 택했다. 남도 산야와 정서에 부합하는 풍경들은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한다.

4부 '이국여행 고대 문명 탐방'은 시야가 확장된 작가의 예술관이 집약된 공간이다. 해외여행과 맞물린 고대 문명 탐방에서는 '경계'를 넘고자 하는 작가의 심미안이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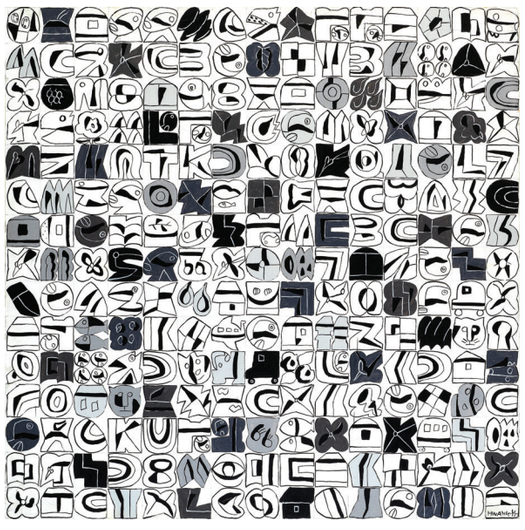
다채로운 조형적 구성을 보여주는 5부 '만유공존 우주 가족'은 2000년대 이후 작품들로 구성됐다. 다양한 재료와 묘법을 매개로 실험적 조형세계를 보여주는데 기하학적 곡선으로 잘라 붙인 종이 드로잉, 은색 알루미늄판 도상 표현, 캔버스 가득 명시나 한시를 변형한 문자도(文字圖) 시리즈 등은 이색적인 아우라를 발한다.

마지막으로 6부 '멈춤 없는 화업정진'에서는 지난날 '가족 이야기'를 넘어 여전히 진행 중인 최근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이지호 도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작가의 성실하면서도 치열한 예술 세계를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며 "가족에 대한 사랑은 물론, 그 너머의 만물에 대한 조화와 포용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미술관은 오는 21일 오후 3시 황 화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한다. 식전 행사로 양상블 콘서트 등도 진행하며, 전시 기간 중에는 작가와의 대화도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Family Story'

'우주 가족 이야기'

## 가장 중후한 목소리로 듣는 19세기 낭만시대 가곡

### '이하석 독창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하석

19세기 낭만시대에 나타난 가곡은 시와 음악이 긴밀하게 결합한 형식이다.

국내·외 가곡을 바리톤에서도 가장 낮은 음역대인 '베이스 바리톤'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독창회가 마련된다.

광주유스퀘어문화관은 '이하석 독창회'를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연다.

공연에서는 슈베르트 곡 '음악에게', '보리수', '들장미', '송어' 등의 가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슈만 곡 '두 명의 척탄병', 커티스 '나를 잊지 말아요', 토스티 '세레나데' 외에도 이은상이 작시하고 현제명이 작곡한 '그 집 앞' 등 한국 가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비목(한명희 작시, 장일남 작곡)', '아무도 모르라고(김동환 작시, 임원식 작곡)', '청산에 살리라(김연준 작시·작곡)', '시간에 기대어(최진 작시·작곡)'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외에도 '눈(김효근 작시·작곡)', '동심초(설도 작시, 김성태 작곡)' 등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베이스 바리톤 이하석은 광주예고, 연세대 성악과(베이스 바리톤), 이탈리아 밀라노 코멘세 아카데미를 합창지휘 전공으로 졸업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성악과, 파르마 극장 아카데미 성악과, 파르마 국립음악원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광주예술영재교육원에서 성악강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호신대 음악과 객원교수. Terre dei Fieschi 국제 콩쿠르에서 특별상(한국인 최초 젊은음악가상), Via della Seta 콩쿠르 등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바리톤 이하석은 "이번 독창회는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 잘 알려진 곡들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가을의 끝자락, 19세기 낭만시대 가곡을 감상하며 시와 음악을 함께 즐기는 따뜻한 시간을 충전하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기억과 망각, 시간과 공간에 대한 탐색 최수미 초대전, 15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

전시실에 들어서면 환한 기운이 넘친다. 단순히 밝은 기운이 아닌 깊이와 사색이 느껴진다. 나뭇가지와 가느다란 줄기를 중심으로 형상화된 그림은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아우라를 환기한다. 작품에서 나뭇잎은 배경으로 존재하며, 절제된 색채와 대상은 수다한 이야기와 시간을 품고 있다.

최수미 화가 초대전이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TIME TREE: 기억의 파노라마'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시간, 기억을 모티브로 한다. 작가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억과 망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사유를 화폭에 담아냈다.

"기억의 시간과 조각들은 커다란 나무에 내려앉아 세상을 노래하듯 가지들 사이사이에 차곡차곡 담아낸다"는 전시실 벽면의 문구가 이번 전시를 적확하게 설명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시공의 역사'. 작품은 현대인들의 잠재된 의식 속에 드리워진 시간과 공간을 특유의 절제된 화법으로 풀어낸 것이다.

작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작품은 은유적이면서도 신비롭게 풀어낸다. 내면의 시간은 작가의 심리적 시간이기도, 작품을 바라보는 의의 삶의 여정일 수도 있겠다.

최 작가는 "누구에게나 지나온 과거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저마다의 삶과 서사, 감성, 기억, 망각 등이 겹쳐진 은유적 시공간일 것"이라며 "그림을 통해 지나온 날의 추억와 생의 삽화를 한번쯤 여유를 갖고 떠올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병학 미술학 박사는 "작가 최수미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노거수의 이미저리를 모티브로 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화면의 주제를 재구성하여 비현실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아울러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나타난 심미적 메타포 감성으로 대변하여 예술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한다.

한편 최 작가는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를 했다. 북경 창작전(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한국현대미술작가 10인회화전 한일교류화 청구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으며 현재 전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공의 역사 Ⅰ'

'체어, 테이블, 체어' 광주공연을 준비하는 팀 퍼니스트 멤버들 김한상(왼쪽부터), 최대성, 이원호, 김희명, 심재성. 〈팀 퍼니스트 제공〉

## '팀 퍼니스트' 특별기획공연…18일 북구문화센터

무대 위에 놓인 의자 두 개와 책상 하나. 그 위로 흐르는 음악과 서커스의 향연.

팀 퍼니스트(음악감독 심재성)가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공연으로 서커스음악극 '체어, 테이블, 체어'를 선보인다.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북구문화센터.

공연은 음악과 마임, 서커스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혼합하는 종합극 형태를 표방한다. 기차역을 배경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겪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마임'을 매개로 다원예술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오프닝 곡 '시작'으로 막을 연 뒤 듀크 엘링턴의 'Take The A Train'을 팀 퍼니스트가 편곡해 들려준다. 'all of me', '트레인 블루스', '닥터지바고 중 라라 테마곡' 등도 울려 퍼진다.

음악과 함께 넌버벌 퍼포먼스(무언극)도 볼 수 있는데 저글링, 마술, 아크로바틱, 드로잉 퍼포먼스 등이 곁들여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눗방울과 코미디 연기도 예정돼 있으며 '도나우강의 잔물결', '인연'도 들려준다.

팀 퍼니스트는 2003년 창단해 국내에서 희소한 '서커스 코미디'를 펼치고 있는 4인조 팀이다. 심재성이 예술감독 및 베이스를 연주하며 김한상이 색소폰을 분다. 퍼커션·서커스 아트는 최대성, 아코디언·서커스 아트는 김희명이 맡는다.

팀 퍼니스트 최대성은 "광주 공연을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고 호응도 좋았던 기억이 가득하다. 색소폰과 아코디언, 퍼커션, 베이스의 선율과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했다.

북구청 문화예술과 북구문화센터팀 문나리 주무관은 "서커스와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혼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쉽게 즐기기 힘든 종합다원예술을 감상하시고 문화적 감수성을 채워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